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 : 시편 103:1-22

요절 : 시편 103: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016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물론 감사는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정말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은택을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고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져서 힘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며 찬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 찬양은 영적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秘訣)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택(恩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시(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하나님의 은택 (1-5)

1. 은택(恩澤)을 잊지 말지어다(1-2)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2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처음과 마지막 구절이 똑같습니다. 이런 기법(技法)을 시(詩)에서는 수미상관법(首尾相關法)-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 통함이라고 하는데 구성에 안정감(安定感)을 얻을 수 있으며 의미(意味)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Praise the Lord, O my soul) 먼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인 송축(頌祝)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송축(頌祝)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송축하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原語)로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어근(語根)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입니다. 또 ‘인정하다, 감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사랑이시요, 구원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송축하라’는 것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찬양’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찬양은 감사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사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감사를 드리는 일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나 자신과 내 주변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19-20절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둘째, 누가 또 어떻게 송축해야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1)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知情意)를 포함한 나의 전체 삶과 내 모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나 우리의 전심(Whole heart)이 요구됩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기뻐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신10:12) 우리 각자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왜 송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2) 여기서 은택(恩澤)이란 ‘benefit’로서 은혜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실제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에 대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마음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수양회에 참석하여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너무 너무 감사하여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까.’(선교사로 가고, 목자로 살고, 새벽기도 하고, 양식 잘 먹고, 하루 세 번 기도하고, 양을 데려오고...)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은혜가 가물가물해 집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나중에는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은혜 망각증이 있어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대신 자신이 당한 상처는 오래오래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 상처받은 것은 잘 기억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평생 동행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을 때 우리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랑하사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에덴동산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역자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주시고 모든 먹는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들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죄를 범하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엑소더스(exodus-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 하였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를 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복을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길로 들어서자 그들은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악해졌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대신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미움과 반발심으로 변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낳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자신도 불행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감사 찬양하지 않고 매사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자신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할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까?

2.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3-5)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3a)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3a) 다윗은 다른 모든 은혜보다도 가장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미화시키고 본성대로 사는 것을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데 괴로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합리화시키고 애써 태연한 체 하려 해도 영혼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죄를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은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시32:3,4)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수없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곤고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져 있었기에 잔잔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주옥같은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파괴되었을 때 그는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타이틀과 세상적인 영광이 그에게 아무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사람을 수치심과 자의식, 도피심리와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건전한 정서와 인격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감추느라 점점 이중적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자아가 형성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심하면 정신병자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죄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담학자 하워드 크라인벨은 자신이 4살 때 1살 된 동생과 놀다가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죄의식 때문에 30대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 문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인 죽음으로서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죄의 대가로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가 애통하며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은 후 그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시32:1)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죄수가 극적으로 무죄 석방되는 것과 같은 감격입니다.

우리도 과거 죄로 인해 고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수치스런 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의 무거운 죄 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추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십니다.

올해 우리는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많은 허물과 죄를 드렸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안일과 교만의 죄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번번이 정욕에 넘어져 목자로서 염치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언행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고 후회할 때도 많았습니다. 안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자아를 상실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행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미쳐버리고 폐인이 되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계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찬송가 320장)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3b)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3b)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수도룩합니다. 심장병, 위장병, 디스크, 간염, 비염, 관절염에서 부터 시작하여 무좀, 여드름, 변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병은 좋은 병원에 가서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 자폐증, 대인 공포증, 편집증 같은 정신의 병은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 죄의식과 두려움, 고독과 절망의 병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 덴마크의 사상가)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심병, 조금만 사랑을 안 해주면 빠치는 막내병, 최고로 인정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일류병, 분수를 모르는 푼수병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모두 육체와 영혼이 병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붙잡히 여기서 일일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반은 이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거라사 광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기심으로 심령이 오그라진 세리 마태의 내면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야심으로 병들어 있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인내하며 치료하사 마침내 인류의 스승들로 키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고 힘찬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 영혼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병을 치료함 받았을 때 우리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한숨 대신에 웃음소리,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각도 건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힘들면, ‘안돼!, 나는 안돼!’ 하며 쉽게 포기했던 자들이 이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를 외치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우울증에 시달리던 자들이 열심히 캠퍼스를 누비고 피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든 사고를 치료하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4:2)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4a) 여기서 파멸은 ‘덫’(a trap), ‘함정’(vessels), ‘구덩이’(pit), ‘멸망’(destruction)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 여기저기에 파놓은 함정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시기하여 여찌하든지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시도 마음 놓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죄의 함정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노리고 있는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정욕이 함정이 됩니다. 오늘날 영화, 비디오, CD롬 등 영상매체를 통해 범람하는 음란물들은 청소년들에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정욕은 처음에는 쾌락과 인생의 행복을 줄 것처럼 아릿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정욕의 함정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좀처럼 빠져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파멸로 인도하는 함정입니다. 사람이 돈 맛을 모르면 돈 없이도 잘 삽니다. 그러나 일단 돈맛을 알게 되면 돈독이 올라서 돌아버리게 됩니다. 요사이 시끄러운 최순실 사건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탐욕이라는 덫에 걸려든 그녀는 이제 골방에 갇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데올로기나 이단사상도 함정이 됩니다. 사람이 여기에 빠지게 되면 건전한 상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만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요즘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생활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인본주의 신앙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틈만 나면 꾀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미리 다 피해가면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때로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은 정욕의 함정에 빠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거나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므로 그녀의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밭줄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 인생을 살게 해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4b)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4b)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사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집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비단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한없이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쓸모없던 저희를 셋별같이 귀한 양 무리들을 감당하는 캠퍼스의 목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장차 천사도 흠모할 선교사로 삼고자 하십니다. 세계 234개국 지성인들을 믿어 순종시키는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직분은 대통령이라도 임기만 지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서 씌워 주시는 관은 영원토록 값지고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탕자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5a)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아시고 친히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8:11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며 영혼의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며 좁은 마음을 넓히시며 탐욕과 허탄한 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곤란한 중에서 위로를 주시며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십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의 행실을 깨끗케 합니다(9).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참 기쁨을 주며(24),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고(32), 탐욕에서 건지시며(36),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99).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154),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165),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151).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주일 말씀과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모르는 고민을 안고 기도실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사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무기력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사 다시 일어나 투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시119:105)고 하였습니다. 말씀 덕분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갈 길을 밝히 보며 인생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5b) 독수리는 힘과 젊음과 불로(不老)의 상징입니다. 독수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독수리는 꼭 노쇠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수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털갈이를 하지만 100년이 되면 모든 털이 빠지고 새털이 나서 다시 젊어진다고 합니다. 독수리들은 늙어서 죽기보다는 부리가 길어져서 그것이 잘못되어 많이 죽는

합니다. 청춘을 최후(最後)까지 보존하고 있는 젊음의 심볼(symbol 상징)일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청춘을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독수리의 또 하나의 특성은 위기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폭풍이 다가오면 다른 새들은 보금자리를 찾아 숨어버리지만 독수리는 날카로운 쇳소리를 지르며 구만리 창천(蒼天)으로 솟아올라 높고 광활한 세계를 무대삼아 하늘의 제왕이 되어 활동합니다. 또 이따금씩 독수리가 날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쏜살같이 내리꽂히려 하면 비상한 힘을 발휘하여 쏜 살같이 뒤집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을 한 번 하고나면 훨씬 더 힘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40:30,31)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말하였습니다(고후4:16). 여호와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될 때 아무리 밤을 새며 일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나이를 모르는 만년 청년이요, 정열적으로 일하는 불사조(不死鳥)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상에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6가지 은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택들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든지 슬픈 일든지 쉬운 일든지 어려운 일든지 마음이 힘들고 이해가 잘 안가더라도 지금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개인적 생활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믿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그저 정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양들과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슨 일든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해봅시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꿔서 감사 찬양 해야겠습니다. 기도 할 때도 감사 찬양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며 감사 찬양 해야겠습니다. 찬양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없는 찬양은 공허한 소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찬양이 심령으로부터 울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인의 적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20:15)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대하20:21) 하나님께서 적군들끼리 서로 싸워 진멸케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죽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을 때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이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행16:25).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일이 잘못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미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찬양하면 이미 영적전투에서 승리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운 사건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주권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13:15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기에 힘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견고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주 감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동역자 끼리도 서로 감사하며 칭찬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 사랑의 관계성이 더욱 견고하여 집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감사하며 장점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밝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따르기 쉬운 위험 가운데 하나가 딱딱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활기 있고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 찬양은 우리 삶에 쾌활함과 명랑함과 즐거움을 더하여 줍니다. 자주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몸에는 엔돌핀(endorphin-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통증 완화효과를 지닌 아편성 단백질의 총칭)도 많아져서 몸의 저항력도 높아지고 갖가지 질병을 이기고 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잘 돌아가게 되어 일의 능률이 오르고, 자연히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영육 간에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II. 하나님의 인자(6-22)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6,7).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약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의 행위를 알리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8). 하나님은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마음에 죄를 품지 않도록 가끔 책망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책망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저가 우리의 체질이 흠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롬2:4).

셋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미칩니다(17).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15,16) 인생은 일시적이며 부귀영화(富貴榮華)와 청춘은 질병과 사고와 재난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인간의 덧없음과 절망과 허무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19).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천

천사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20-22). 그러므로 모든 천군 천사들은 여호와를 송축해야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22)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질병과 파멸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쓸모없던 저희를 캠퍼스 목자로 세우시고 양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7부의 장막 터를 넓히셔서 광산권 6개 대를 개척하기 위해 광주여대 바이블 하우스를 얻게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주옥같은 사도행전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심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김어거스틴, 정예녹, 이이사야, 강여호수아, 박디모데 목자님들을 메신저들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저희 모임에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양 한마음 수련원 봄수양회, 장성 청백 한옥 여름수양회, 영암 남향재 가을 수양회를 크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자님들이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모여 말씀을 준비하고, 학사, 사모님들(김민음, 이다비다, 강영주, 김종민)과 학생들(김세진, 안세호, 남기연)이 인생소감을 발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밤늦도록 성경공부하며 힘을 다해 1:1 역사를 섬긴 동역자님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금년에 소망 있는 6명의 리더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생회 장막(김세진, 안세호, 남기연)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누가 목자님에게 건강을 되찾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신 목자님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어둡고 부패하여 냄새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을 빛의 사자들로 부르셔서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도전과 시련을 주심으로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택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축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택들을 잊지 말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택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